



자재비 관리를 위한 일견

김현회 / 원캔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

원자재 가격의 계속된 오름세는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설비건설업계를 더욱 옥죄고 있다. 이번 호에서는 4/4분기 주요 자재 전망과 현장 손익관리 요소에 관하여 소견을 내어 보았다. 현장 손익의 핵심 요소는 인건비, 자재비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, 인건비는 단가가 거의 고정이므로 투입 인원 관리 외에 별도로 고려할 내용이 없지만, 자재는 공사기간 내내 변동성이 크므로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 먼저 자재 동향부터 살펴 보자.

9월 자재 동향

자재 및 원자재 전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원자재 가격은 8월, 9월 연속으로 큰 폭 상승국제 비철 시장에서 니켈, 전기동 및 철스크랩의 가격 상승으로 국내 철강재, STS재, 동관류의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짐
동관 및 연관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8월에 이어 9월에도 동관의 가격 상승은 큰 폭으로 이어졌으나 지난 해의 경우처럼 동관 가격이 최고점에 이르렀다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. 10월 이후 가격 하락 예측
STS 관련 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STS관의 경우 가격 인상이 계속될 전망이나, 9월 중반부터 공급이 원활해지고 있어 단가가 최고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
PVC 관련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올해 각 제조사의 KS 형식 승인 취소와 새로운 KS형식의 고시로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임. 10월부터 소재의 변화로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되었으나 각 건설사나 현장에 관계 부처의 방침이 정확히 고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혼란 가중기존에 진행 중인 현장 별로 원청사 등에 문의를 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여 대책 마련
강관자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9월까지는 가격변동이 없었으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각 제조사들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. 10월부터 큰 폭의 가격 상승이 확실시 되고 있음
구매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단기 품귀 물량의 경우 물량 확보를 위해 선 구매 필요장기 물량의 경우 하락 전망이 우세하므로 가격 추이와 수급 상황을 지켜보며 최소한의 물량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함